

# 광주 1320만원 벌어 1160만원 쓴다

## GRDP 전국 2.1%...광역시중 꼴찌

(지역내총생산)

### 서비스업 큰 비중...소비도시 여전

광주는 지역내 생산에 비해 소비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로 나타났다.

2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이후 호남권 지역내총생산 추이'에 따르면 광주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24조4000억원으로 2005년 18조9000억원보다 23.9% 증가했으며 이는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특히 광주의 GRDP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년 사이 0.1%포인트

감소한 2.1%로 대전(2.3%), 강원(2.5%) 등과 함께 하위권에 머물렀다.

1인당 GRDP는 1680만원으로 5년 전(1310만원)보다 28.7% 늘었지만 대구와 함께 가장 낮은 지역으로 꼽혔다. 1인당 개인소득은 1320만원으로 5년 사이 29.5% 증가했다.

반면 1인당 민간소비지출은 2005년 880만원에서 31.6% 늘어난 1160만원으로 서울(1590만원), 울산(1270만원), 경기(1260만원), 부산(1220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번

째로 높아 소비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지난해 GRDP가 56조5000원으로 2005년(42조8000억원)보다 32.0% 증가했다. 1인당 GRDP는 3240만원으로 5년 사이 40.5%가 늘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증감률을 보였다. 하지만 1인당 개인소득은 1160만원으로 전국 평균(1350만원)에도 못 미치는 5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1인당 개인소득은 울산이 162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1590만원), 대전(1350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전남의 1인당 민간소비지출은 99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지만 5년 사이 45.6%나 증가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였다.

한편 광주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2010년 65.6%)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2010년 27.0%)은 2005년(24.2%)에 비해 2.8%포인트 증가했다.

건설업은 2007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로 2005년(7.9%)에 비해 2.9%포인트 줄었고, 농림어업 비중은 2010년 1.0%로 2005년 1.1%에 비해 0.1%포인트 감소했다.

전남은 제조업은 2005년(35.6%) 대비 2010년(39.0%) 3.4%포인트 증가하고 서비스업 비중은 2005년(39.0%) 대비 2010년(40.0%) 1.0%포인트 높아졌다. 농림어업의 비중은 2005년(10.9%) 이후 2008년(7.6%)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2009년(8.4%), 2010년(8.0%)로 높아졌다.

/이문미기자 emlee@kwangju.co.kr



“봄벌에서 피부를 지켜주세요”

27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1층 화장품 매장에서 직원들이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에 자외선 차단에 효과가 좋은 화장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주거비 부담 역대 최고

전·월세 가격과 난방비가 동시에 치솟아 주거비 부담이 역대 최고치로 급증했다.

27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계 총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슈바베 계수는 2007년(9.71%) 이후 계속 상승해 지난해 11.5%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슈바베 계수는 주거임대료와 수도·광열비 등 주거에 직접 관련된 소비가 포함된다.

지난해 1분위 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률(16.45%) 역시 2003년 이후 최고치다. 1분위와 5분위의 소득격차는 2003년 6.13%에서 지난해에서 8.50%로 확대됐다. 연구원은 주거비 부담 상승에 대해 “실질소득과 가계 구매력 정체 탓에 실소득에 제약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2006~2008년 실질소득은 이전 3년 대비 6.4% 늘었지만 2009~2011년에는 2.6% 증가에 그쳤다.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도 같은 기간 대비 2006~2008년엔 5.7% 늘었다. 2009~2011년엔 1.5%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자·연금·보험 등 공격적지출이 증가한 탓에 가처분소득이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 연구원은 “주거비는 쉽게 줄일 수 없어 실질소득이 정체·감소하면 주거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고물가에 SALT형 소비 뜬다

## 대한상의 “소비자 세일 이용·저가 선호”

“소비자들이 SALT형 소비를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500가구를 대상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를 조사한 뒤 결과를 분석해 ‘SALT’라는 키워드를 27일 제시했다.

‘소금’이라는 뜻의 영단어이기도 한 SALT는 ‘세일 이용(Sale)’, ‘소량 구매(A little)’, ‘저가 선호

(Low price)’, ‘브랜드 전환(Transfer)’을 의미하는 영어의 이니셜 조합이다.

고물가시대 소비자들은 철저하게 세일을 이용해 저가 물품을 적정량만 구매하는가 하면 가격이 올라 즐겨 구매하던 브랜드까지 바꾸는 등 ‘잔 소비’를 한다는 의미다.

1년 전에 비해 소금 때 가격에

신경쓰는 일이 많아졌느냐는 응답에 94.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할인행사나 관측행사를 이용하는 횟수가 잦아졌느냐는 물음에는 89.6%가, 소량 구매를 자주하느냐는 질문에는 68.8%가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8.2%는 상품 구매 전에 관련 정보를 반드시 찾아본다고 했다. 또 더욱 저렴한 상품을 사기 위해 브랜드 전환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86.5%가 동의했다.

/연합뉴스

## KJB사랑센터 13호 아동시설 ‘성빈여사’

KJB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27일 오후 동구 남동에 소재한 아동양육시설인 ‘성빈여사’에서 송기진 은행장과 김홍규 광은 리더스클럽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JB사랑센터 13호점’ 선정식과 기념식을 가졌다.

“KJB사랑센터 13호점”으로 선정된 ‘성빈여사’는 1952년에 설립한 아동양육시설로 특히 여자 아동들을 전문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현재 약60여명의 여자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지역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광주은행은 ‘KJB사랑센터’를 선정,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부활동 및 임직원들의 정기적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한우-돼지 가격 희비 교차

## 1년새 한우 20% 하락...돼지 49% 급등

한우와 돼지 가격이 지난해 희비의 쌍곡선을 그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7일 지난해 축산물등급관정 결과를 분석했다니 소와 돼지가 각각 85만62두, 1081만 8691두 출하됐다.

거래 가격을 보면 한우는 마리당

487만8000원이고 돼지는 51만2000원이다. 전년과 마리당 가격을 비교하면 한우는 120만2000원 내렸고 돼지는 17만4000원 올랐다.

거세한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은 78.3%로 전년 77.8%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별 1등급 이상 출현

율은 강원이 81.4%로 육질이 가장 우수했다. 그 다음은 충북(80.1%), 충남(78.8%) 순이었다.

한우도체의 평균 경락가격은 1만 2782원/kg으로 전년 1만6036원/kg보다 3254원(20.3%) 하락했다. 돼지 도체 평균 경락가격은 5808원/kg으로 전년 3891원/kg 대비 1917원(49.3%) 올랐다.

/연합뉴스

# 투자자문사 당기순익 74% 줄어

## 유가증권·파생상품서 손실

투자자문사의 당기순이익이 70% 넘게 급감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3분기(4~12월)에 159개 투자자문사의 당기순이익은 193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539억원(73.6%) 감소했다.

이는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추가 하락으로 자산사들이 고유재산 운용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문사들의 유가증권 손실은 1239억원으로 전년동기의 645억원에 비해 급증했다.

영업비용은 2397억원으로 801억원(50.1%) 증가했다. 유가증권 등 관련 손실이 594억원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영업수익은 수수료 수익 증가로 2823억원에 달해 280억원(11.0%) 늘어났다. 자산사별 당기순익은 브레인트투자자문사가 183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케이원 138억원, 디에스 36억원, VIP 31억원, 포커스 24억원 등의 순이었다.

자문사의 총 계약고는 23조원으로 9000억원(4.1%) 늘었다. 전년기말

대비로는 4조4000억원(16.1%) 줄었다.

계약고 감소는 코스모투자자문사 자산운용사로 전환했고, 증시 조정때문에 따른 자본형 램 계약고가 9315억원 줄었기 때문이라고 금융원은 설명했다.

브레인과 케이원, 코리아리 등 상위 10개사의 계약고는 14조4000억원으로 전체 계약고의 62.2%를 차지했다. 브레인(3.9조원)과 케이원(2.4조원), 코리아리(1.8조원), 한가람(1.3조원), 가을(1.1조원) 등 5개사의 계약고가 1조원을 웃돌았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투자자문사의 총자산은 6832억원으로 전년기말에 비해 445억원 감소했고 총부채는 81억원 줄어든 803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자기자본은 6029억원으로 364억원 줄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입니다

# 세기보청기

##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 전국점망

서울 삼일로점(합동점) 삼일로 입구: 022276-0657-9 강남점(합동점) 남고속터입구: 023477-5110 종로2가점(합동점) 명동: 02733-0220 송파점(신촌역 2번 출구): 02419-3388 경기 안양점(구.신촌역) 안양: 032421-2288 부평점(부평역) 부평: 032617-5110 수원점(남문) 수원: 031246-5110 의정부점(의정부역) 의정부: 031821-6655 안양점(백산로2001) 안양: 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평택: 03166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 용인: 031336-1090 오산점(오산역) 오산: 031378-4183 부천점(부천역) 부천: 032329-4400 남양주점(평내) 남양주: 071823-9803 부산 서면점(서면역) 부산: 051618-8800 서면A점(서면역) 부산: 051256-7200 울산 울산점(울산역) 울산: 05228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마산: 055291-0300 진주점(진주역) 진주: 055745-9870 대구 동명점(동명역) 대구: 053425-4440 삼척점(삼척역) 삼척: 053426-1511 남일점(남일역) 남일: 053425-7576 경북 포항점(포항역) 포항: 054044-5110 안동점(안동역) 안동: 054659-2248 광주 광주점(광주역) 광주: 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 광주: 062659-4477 전남 순천점(순천역) 순천: 061705-6945 전북 전주점(전주역) 전주: 063252-5722 오산점(구.서생점) 오산: 063446-1188 익산점(익산역) 익산: 063638-6600 남원점(남원역) 남원: 063632-3626 대전 대전점(대전역) 대전: 042254-5110 대전점(충로터) 대전: 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대전: 042255-6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천안: 041553-2888 광주점(광주역) 광주: 041852-5110 충북 청주점(청주역) 청주: 043254-5110 대전점(대전역) 대전: 043652-1414 강원 강릉점(강릉역) 강릉: 033647-0588 춘천점(춘천역) 춘천: 033253-5110 제주 제주점(제주역) 제주: 064753-4358

###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p>■ 광주 귀도청기 세기보청기</p> <p>문의전화: 062225-5110</p>	<p>■ 광주 박은청기 세기보청기</p> <p>문의전화: 062651-4477</p>	<p>■ 순천점 세기보청기</p> <p>문의전화: 061752-8845</p>
---	---	---